

李星湖와 藿憂錄(二)

鄭寅普

國家，宜稱量一家之產，限田幾負，爲一戶永業田，如唐之租制，過者，不減奪，不及者不加授，有價欲買者，雖千百結，皆許，田多欲賣者，只永業幾負外，亦許，過而不願賣者，不強，不及而不能買者，不促，惟永業幾負之內，有買賣者，所在覺察，買者，治其奪人永業之罪，賣者亦治，匿賣而買者，不論價還之，亦使田主自告官免罪而推還己田，凡買賣，必使告官而後成，官亦考驗田案而後，作卷以付之，其無印文者，不許聽訟，則雖無急效，必見永賴也，何也，以余一里觀之，去年幾戶破，今年，幾戶又破，破者，自多田，至少田，自少田，至無田，田既無矣，奈何不破，制民產者，雖不能奪此授彼，貧民若以見在餘田，恒保爲業物則豈非少益之道乎，凡賣田者必貧民也，今有猾吏豪商，得貨千萬，一朝而聚衆貧民之田，享素封之樂而目下破戶者不啻多矣，不已害乎，使貧民不賣田，則賣者稀，故兼并減，貧民或有智力可以得田則得尺得寸，有入而無出，故易以興，富民田雖多，或多子之分占，不肖之破落，不過數世而與平民等，如是則駸駸然完成均田之制矣，貧戶免目前傾竭之患，則貧人固悅矣，富戶雖至破敗，而永業自在，則富人之有後慮者，亦將悅矣，如是則行之易而效必至矣，此其大槩也，或疑吉凶之費，有不容不賣者，然賣盡無田，又將奈何，獨不思授井之時，民不得買賣乎，此可以諭矣，若夫損益則在行之者。

이 議論이 얼른 보아 그리 神奇치 아니한듯하나, 久諳, 熟練치 아니한이로는 이가튼 平實近민한 意見을 가질 수 업다. 또 그의 行文한것으로만 보아도 文章의 馳騁이라고는 조금도 업고 오즉 實際的 情形만의 敬述임에 쓰치는것이 이 實로 時艱, 民虞에 곱흔 憂念을 가진 眞志士의 遺影이라 아니 할 수 업다. 尋常한것 가타도 그 實에 踏着함이 書冊, 口耳로서는 바라지 못하는 것이라. 그 時代, 그 民生 이 利病을 實地로 體得한이라야 비로소 이를 바랄 수 있다. 燕巖의 議에 比하야 緻密함과 條鬯함이 좀 不及한 듯하나, 原流의 眞脈을 按하매 먼저 星湖의 이 論文을 尊禮치 아니할 수가 업다. 이를 미루어 보면 星湖藿憂錄의 一切施設에 對한 己見과 閔痛이 視線과 아울러 쏘이

는 當時觀이 얼마나 深切할것을 누구나 想像할 수 있지 아니한가.

黨禍는 朝鮮을 灰燼한 炎火이니 이제와 누가 이에 對한 痛恨이 업스랴 마는 그 原委를 說明하기에 이르러는 여러 가지 見解가 이제껏 紛紜하여 定치 못하였다. 臺閣이 太峻하여 그러타 果然 臺閣太峻의 탓일가. 昇平이 太久하여 그러타 果然 昇平太久의 탓일가. 閔闕太盛하여 그러타. 果然 閔闕太盛의 탓일가. 道學이 太存하여 그러타. 果然 道學太尊한 탓일가. 名義가 太嚴하여 그러타. 果然 名義太嚴한 탓일가. 官職이 太淸하여 그러타. 果然 官職太淸한 탓일가. 刑獄이 太密하여 그러타. 果然 刑獄太密한 탓일가. 文詞가 太繁하여 그러타. 果然 文詞太繁한 탓일가. 이모타 菁盲을 釀成하는 衆崇—아님은 아니나 猫咬, 獅搏하드시 곳 그 頸腦를 洞裂하는대 잇어서는 安만하여도 一膜의 隔이 업지 아니한 것이다. 星湖藿憂錄의 朋黨篇은 實로 四百年 間黨禍의 匙鑰를 獨操한 것이니, 그의 披索하는 압혜는 어름어름하는 浮翳가 벗집을 하지 못하게 됴므로 重雲을 杼르고 厚□를 혜치어 마춤내 저의 窟宅을 搜索하고 마른 것이다. 星湖도 族氏로 보아 黨中人이 아니것만 스사로 翳과 圍에 染蔽치아니함이 그 얼마나 俊偉한 丈夫인가. 民虞만 보이는 그 悲眼이며 時艱만 만치 이는 慈手인지라. 어느듯 自己의 生長이 어느곳에 익엇슴 싸지도 생각 할暇隙이 업섯슬 줄안다. 누구나 이 朋黨篇을 드를 수 업다.